

경기장·숙박시설 집중... 저비용 대회로

“스위스 FINA 본부 25번 찾아 열정·정성으로 못할 일 없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어떻게 치러지나

3500세대 선수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연말 조직위 창립 내년초 사무국 구성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가 확정되면서 경기장과 선수촌 아파트 건립, 조직위원회 구성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와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부대에 경기장 집중=남부대 캠퍼스 내에 짓고 있는 수영경기장이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종목인 수구경기장,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경기장은 10~20억원을 들여 임시시설로 설치된다. 또 MPC(메인 프레스센터), IBC(국제방송센터), 의료시설, 도핑 시설 등도 경기장 주변에 중점 배치하는 경기시설 집중화(One Site-Venue)를 통해 아쿠아틱 콤플렉스(Aquatic Complex)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남부대 캠퍼스 안에 짓고 있는 메인 수영장은 전체면

적 1만923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경영 풀(50×25×3m, 10레인)과 다이빙 풀(33×25×5m), 연습 풀(50×21m, 8레인)이 들어서며, 관람석은 3590석이다. 총사업비는 684억원으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관립식 1만5000석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5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이 밖에 새로운 종목인 ‘하이 다이빙’을 위해 높이 27m의 다이빙시설이 나주군에 들어선다.

▷3500세대 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시는 유치조건으로 국제수영연맹에 3500세대 규모의 선수촌 아파트 건립을 약속했다. 시는 선수촌을 신규 조성하지 않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선수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이후 추진 일정



과 동일한 방식인 아파트 재건축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선 5기 우수 행정 사례로 꼽히는 ‘재건축을 통한 U대회 선수촌 조성’은 국제스포츠 사상 처음 시도된 것으로, 예산절감과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현재로서는 남부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9.07km)인 광산구 송정 주공아파트(1983년 준공·952세대)를 비롯해 12분 거리(5.28km)에 있는 북구 운암 주공3단지(1984년 준공·2020세대) 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치위원회 결성 등 향후 추진 일정=시는 일단 오는 8월 유치위원회 법안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유치백서를 발간한다. 또 10월에는 대회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12월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원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조직 구성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진다. 또 내년 6월에는 사무국 설립 및 기본운영계획과 준비진행상황을 FINA에 제출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회 시설과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제·제도적 절차 마련에도 들어간다.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수영경기장 착공식. 지난 4월 24일 공사가 시작된 이 경기장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종목 메인 경기장으로 먼저 사용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242개 경로당에 7~8월 냉방비 지원

운영비 외 월 10만원 추가

광주시는 올해 무더위가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로당에 7~8월 2개월간 냉방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8월 한 달만 냉방비를 지원했지만,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는 광주지역 1242개 모든 경로당에 기존 운영비 지원 외에 별도로 냉방비를 10만원 추가 지

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531곳에는 재해구호 기금을 통해 냉방비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한층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냉방비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 휴가기간 어린이집 휴원 최소화

대체교사·도우미 투입

광주시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 사유가 집중되는 7~8월 여름 휴가기간에도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이 원칙이지만, 교사의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어린이집별로 규모와 여

건에 맞게 순번제 휴가계획을 사전에 수립·운영하는 등 보육 공백을 최소화해 보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학부모가 여름마다 겪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중인 대체교사와 보육도우미를 해당 시설에 파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이끈 김윤석 사무총장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돕는 현장에서 지휘하며 결국 ‘광주 유치’라는 낭보를 이끌어낸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역시 정성은 통한다’는 말로 승리의 기쁨을 대신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의 일등 공신이기도 한 김 사무총장을 22일 집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무척 기쁠 것 같다.

▲정말 감격스럽다. 수영대회 광주 유치가 성사됨으로써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모두 사라지고 후련한 심정이다. 2019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광주가 또 다른 발전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각종 경기시설과 숙박시설 조성, 운영방안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치 결정 직전에 ‘문서조작’ 보도가 나왔는데.

▲스페인 현지에서 프레젠테이션 시작 5시간 전에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날벼락이었다. 정부에서 유치가 마무리된 이후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먼저 유치를 성사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수영대회 광주유치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보류될 것이 걱정됐다. 다행히 국제수영연맹(FINA) 집행위원들이 ‘광주의 경기 여건 등이 우수하고, 정부의 진폭적인 지원 약속을 직접 들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해해주 유치를 성공할 수 있었다.

-유치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무엇보다도 FINA 집행위원 중 한 국인이 한 명도 없어 내부 정보를 얻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회 유치 준비는 지난 2010년 겨울부터 시작됐는데, 내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지난 3년간 FINA 집행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25번이나 찾았다.

-수영대회 유치가 성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절박이 좋았다. 우리는 수영대회에 필요한 모든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전략을 구사했다. 광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다, 선수나 스태프들도 편리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유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대회나 이벤트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FINA 집행위원들도 본부를 제집처럼 드나든 정성을 좋게 평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정과 정성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정부 예산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광주에서 열리는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수영대회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어렵다고?

市보건환경연구원 내달 6~20일 어린이 체험교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방학을 맞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의 시험검사 장비를 견학하고, 각종 실험기구로 실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어린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동물교실이 추가됐다.

오는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과학체험교실은 선착순 접수로 마감하며, 각 분야별로 2회씩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실시한다. 6~7일은 환경교실, 8~9일은 보건교실, 13일과 20일에는 동물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1회당 교육인원은 20명이다.

환경교실에선 지구온난화와 산성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직접 측정하는 등 환경보전 체험을 하고, 보건교실에서는 음료수의 산성도 측정과 식품검사에 이용하는 약품과 기구 체험, 자기손의 미생물 알아보기 실험 등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신설된 동물교실에서는 육안과 현미경을 통해 동물의 신체를 직접 관찰하면서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유기동물 보호 자원봉사 체험 등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evi.gwangju.go.kr) 또는 전화(보건교실 613-7564, 환경교실 613-7595, 동물교실 613-7653)로 하면 된다.

자연산 참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¹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¹옷 음식 토종 참¹옷담 / 울 청둥오리 / 울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¹옷담 (야생, 식사료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울¹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062)515-5757(울칠울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미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문의전화 : 010-9199-7000 / 010-7171-5382

원 석	전 석	판 재
A급 재당 6,000원 B급 재당 5,500원 C급 재당 4,500원	A급 : 25t 기준 320,000원 B급 : 25t 기준 230,000원 사석 : 25t 기준 190,000원	구분 판재품 규격 완재품 생 산 무 판 재 ~ 800 폭 16,000원부터 3만 M ³ 이상 30T (M ² /당) 항시보유 버 너 지석연마 잔 다 들 혹 두 기 사 구 석 경 계 석
골 재	건치석	기 타
보조기중 : 현장직구입 자 갈 : 현장직구입 개 비 온 : m ³ 당 12,000원 모 래 : m ³ 당 12,000원	공사용 1,300원(개당) 묘축용 1,300원(개당)	◎ 자연 조경석 생산 ◎ 징검다리 주문생산 (010-5388-3666)

※ 전 품목 현장 상차도기중

모동기공사 (채석장소재)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 944 - 5382 / FAX : (055) 944 - 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모동석재(주) (판재공장)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 943 - 8946 / FAX : (055) 943 - 8947
H-P : 010 - 9171 - 2117 / 010 - 8260 - 0135